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남호선 졸업생 에어부산 캐빈승무원

Q1. 광주여자대학교에서의 대학생생활은 객실승무원의 꿈을 준비하는 데 어떤 시간이었나요?

광주여대에서의 4년은 단순히 진로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게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스스로 찾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피켓요원, 항공 관련 자격증과 어학공부, 해외봉사와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객실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준비했습니다.

Q2. 대학생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2학년부터 3년간 항공동아리 '별하'의 회장을 맡았던 경험이 기억에 납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참여 인원을 10명에서 60명까지 늘렸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움직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Q3.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요?

1년간 휴학하며 하루 11시간씩 영어를 공부해 토익 점수를 910점까지 높였고, 이후 6개월간 YBM 영어학원에서 토익 조교로 활동했습니다.

복학 후에는 매주 면접 질문을 준비하고

영상 촬영과 피드백을 반복하며 객실승무원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Q4. 현재 에어부산 객실승무원으로서 어떤 성과와 경험을 쌓고 계신가요?

현재 에어부산에서 3년 차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방송,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기본과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항공사 이미지 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5. 객실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지난 2년간 승무원의 실제 업무와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두 차례 참여했고, 해당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약 29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객실승무원이라는 직업과 항공서비스 분야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Q6. 광주여대와 후배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KBS '별별다방'에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대표학생으로 출연해 학과 교육과정과 VR실, 실습환경을 소개했으며, 졸업 당시에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후배 임원을 선발하고 운영 경험을 전달하는 등 제가 학교에서 얻은 경험이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7. 광주여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경험을 먼저 찾아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광주여대가 준 가장 큰 선물도 취업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것을 찾아 끝까지 실행하는 힘이었으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받은 기회와 배움을 후배들에게 나누고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동문이 되고 싶습니다.

